

소음과 이명

김규상 저 / 한국학술정보 / 2014. 2. 3



이명(tinnitus)은 난청·현기증과 더불어 중요한 청각 증상의 하나로서, 외부의 음원으로부터 자극 없이 한쪽 귀 혹은 양쪽 귀에서 소리를 느끼는 상태, 혹은 신체 내부에서 들리는, 원하지 않는 청각적 자극을 의미한다. 이과적으로 빈번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타각적 증상이 아닌 자각적 증상이며 정신적인 요소가 많고, 내이·청신경 등에 대한 직접적 접근 및 구체적인 검사가 어렵다. 산업의 발달로 인한 소음 증가, 노령화 추세, 복잡한 생활과 약물 남용 등 이명의 유발인자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명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립된 학설이 없을 뿐 아니라 만족할 만한 진단법이나 치료법 또한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이명은 난청과 동반되는 예가 많아 난청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소음 작업장 근로자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경고증상이 될 수 있다. 소음 노출 근로자에서 소음성 난청에는 주의를 갖고 있지만 이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편이다. 이와 같이 소음 노출과 이명의 관련성이 큰 만큼 청력보존프로그램에서 이명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목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음은 일반 산업장에서보다 군 복무 시에 사격 및 포격 훈련에 의한 충격소음으로 급성 음향 외상성 난청의 원인이 되고, 폭발로 인한 고막천공 등의 중이 및 내이의 손상, 그리고 이명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군과 군인, 전역자의 소음, 난청 및 이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부실하다.

저자는 오랜 기간 동안 소음과 난청에 대한 실무 경험과 조사 연구를 수행하며, 최근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의 보상대책 마련 문제에 관계하면서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산업의학(직업환경의학)을 전공하고 초기에 산업현장에서 소음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하며 청력은 정상인데(중저음역의 평균청력은 정상이나 고음역에서는 어느 정도 청력손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이명을 호소하는 근로자를 종종 살펴볼 수 있었다. 근로자의 청력, 난청과 이명은 특히 군 경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으며,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에 따른 부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소음 노출 작업자의 이명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002년)과 「특수병과의 과거 군 소음 노출이 소음 노출 작업자의 청력에 미치는 영향」(2003년)의 연구 결과로 보고하였으며, 2005년에 「소음과 이명」, 2008년에 「군에서 충격소음 노출과 청신경종」 등 군 소음과 관련한 청각학적 연구를 보고하였다.

저자는 2011년 초에 군이명피해자연대에 속한 전역 군인의 이명 실태를 접하며 같은 해 4월 군 이명 피해자 대책마련 간담회(주최: 국회의원 이진복)에서 '소음과 이명-군 소음을 중심으로'를 주제발표 하였으며, 또 직업환경의학회의 지원하에 동 저자들을 포함하여 이명연구회를 구성하여 학습하였다. 그때에 마침 2011년 7월 이 책의 바탕이 되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주요 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정립 연구 - 난청/이명』의 연구용역을 대한직업환경의학회를 통해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별도로 저자는 군이명피해자연대 회원을 대상으로 군 전역자의 이명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때의 연구 결과는 2012년의 「군 복무로 인한 이명자의 이명 특성과 이명장애의 우울증과의 관련성」, 「군 전역자의 이명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국가보훈처의 연구에 기초하여 2012년 3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이명 피해자 대책 마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군 이명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예방방안」을 발표하고, 2012년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 대책 마련 권고와 동년 9월에 군 전역자들의 이명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권고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군 병원 진료기록이 없는 피해자의 실효적인 치료보상을 위하여 입증책임 완화 등의 방법 마련에 대해 권리구제 및 치료 방안 시행 및 예정 이행계획을 갖고, 국가유공자등록 청력검사에서 고주파영역에서 청력이 떨어지는 이명 피해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검사방법의 채택에 대해서는 '12. 1. 30 청력측정 방법 기준 개선으로 4000 Hz 청력역치를 추가하고, 역치 계산법을 4분법에서 6분법으로 개선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군 이명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을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명 검사 시 삶의 질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 권고에 대해서는 이명만으로 상이등급 판정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현재 이명의 객관적인 측정검사가 없으며, 다른 상이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상이 7급의 청력장애를 50dB→40dB로 하향 조정이 곤란하며, 장애평가시 삶의 질과 사회적 영향평가 포함은 곤란)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국내·외의 난청/이명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장애 보상기준과 이명의 공무상 질병 심사기준을 고찰함으로써 군 복무 관련 이명의 공무상 질병 인정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이 책은 3부로 구성하여 1부에 이명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부분으로 「이명의 역학」, 「이명의 원인과 발생기전」, 「이명의 진단과 평가」, 「이명의 재활훈련」을, 2부에 「군 복무 관련 이명 실태」, 「군 복무 관련 이명 장애와 우울증」, 「난청/이명으로 인한 건강영향」, 「군 소음 노출로 인한 이명」, 「소음으로 인한 이명의 국내·외 연구」 등 군 소음을 중심으로 이명의 실태와 건강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론 성격의 「청력보호구」를 추가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이명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장애 보상기준」, 「이명의 공무상 질병 심사 고찰」, 「군 복무 관련 이명의 공무상 질병 인정을 위한 제언」으로 이명 장애 보상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난청과 이명에 한하여 구체적인 제반 법과 제도를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본서는 이명에 대한 전반적인 최근의 이론과 우리나라의 소음, 특히 군 소음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에 기반한 이명과 이명 장애 실태, 이명으로 인한 건강영향, 특히 우울증 등을 살펴보고, 이의 장애 보상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찰하였다.

이 책은 편저자(김규상,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환경건강연구실)를 포함하여 세부 내용에서 이명연구회의 방정화(한림국제대학원 청각학과), 최윤희(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환경의학연구소), 김진숙(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오성수(연세대학교 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 책이 모쪼록 소음과 이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이명 장애의 예방과 이명 재활, 그리고 이명 장애의 보상에 널리 참고할 만한 도서로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